

#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곽 철 완

(강남대학교 교수)

## 〈목 차〉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방법
  - 3. 연구 제한점
- II. 주요 분류체계에서 지역구분
  - 1. DDC와 LCC의 지역구분
  - 2. KDC의 한국지역 구분
- III. 공공기관의 지역구분
  - 1. 순서를 가진 지역구분
  - 2. 순서가 없는 지역구분
- IV. 한국 지역구분 방향
  - 1. 지역범주
  - 2. 범주 나열순서
- V. 결론 및 제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 분류체계는 기록된 지식을 대상으로 유사한 것은 함께 모으고 다른 것은 분리시키면서 집단화하는 과정이다<sup>1)</sup>. 이때 분류의 대상이 되는 개체는 다양하여 다양한

---

1)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rev ed.(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1981), pp. 1.

기준에 의해서 집단화되는 과정을 밟는다. 예를 들면, DDC나 KDC와 같은 열거형 분류체계에서는 학문의 영역에 의해서 집단화되기도 하며, 문학의 언어, 형식, 시기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지리구분은 지역(region)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 중심으로 집단화시키고 있다.

분류의 기본적인 목적이 정보를 찾고자하는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제의 순서를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분류체계는 자료 조직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여 개개의 문헌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이다<sup>2)</sup>. 그렇다면,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정보에 대한 분류체계가 위의 목적에 맞도록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리정보 분류를 위해서 공공도서관과 소수의 대학도서관에서는 KDC를 사용하고 있으며, DDC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KDC를 기반으로 하여 확장된 다양한 형태의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1996년에 출판된 KDC의 지리구분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십진 분류체계의 특성에 의해 범주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하위 범주는 여러 시, 군, 구(區)가 모여져 있다. 여기에서 KDC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범주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함경북도부터 시작하는 나열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변방을 우선시하고 있어서 KDC의 기초가 되는 DDC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KDC의 한국 지역구분이 가지고 있는 지역범주의 포괄성과 지역범주 나열에 있어서 변방 우선의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리구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째, 도서관

2) Rita Marcella and Robert Newton, *A New Manual of Classification*(Brookfield : Gower, 1994), pp. 3.

분류체계에서 사용하는 지역의 범주화 범위와 범주의 순서 파악을 위해, 도서관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KDC는 DDC을 기본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DDC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리구분의 틀을 분석하였으며, 또 다른 열거형 분류체계인 LCC의 지리구분을 조사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역 범주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리 구분체계를 분석하였다. 전국을 체계적으로 구분한 우편번호 시스템을 비롯하여, 동일 생활권으로 구분되는 행정기관의 관할 구역과 방송권역권을 조사하였다.

###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KDC에서 사용되는 지역범주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에 의한 지역과 장소에 대한 구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산, 강 등은 지리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중심의 구분으로 한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II. 주요 분류체계에서 지역구분

### 1. DDC와 LCC의 지역구분

#### 1.1 미국

DDC<sup>3)</sup>와 LCC<sup>4)</sup>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지리구분은 지역별로 여러 주(states)를 모아

---

3) Dewey, Melvil,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2nd ed (Dublin: OCLC Online Computer Center, 2003)

4)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Class G, Geography Maps anthropology Recreation, 4th ed.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1976)

대범주를 만들고 각 주에서 지역별로 세분하고 있다(<표 1> 참조). DDC에서 지역별 순서는 대서양 연안의 북쪽을 시작으로 남쪽 카리브해 연안의 지역으로 순서를 정하고 오대호 연안의 중부지역에서 서쪽으로 전개하여 태평양 연안의 알래스카 주까지 나열하고 있다. 이 순서는 미국이 개척되는 순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범주는 각 주에서 지역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지역에서 county로 세분된다. 하지만 주에서 구분된 지역별 나열 순서는 특별한 규칙을 보여주지 않고, 지역 특성별로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Wisconsin 주의 경우, 북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북중부, 북동부, 중서부, 중부, 중동부, 남서부, 남중부, 남동부 순으로 나열하였다. 하지만, 인근의 Minnesota 주는 남동부, 남서부, 남서중부, 서중부, 서동부, 동중부, 북동부, 북중부, 북서부의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New York주는 New York시가 가장 앞서 나열되어 있고, 다음으로 New York시 주변의 지역을 배정하였다.

LCC의 경우는 미국 전역을 크게 6개 지역으로 1차 구분하고, 1차 구분된 지역을 지역에 따라 세분하지 않거나 2-3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지역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DDC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북동쪽의 Maine주에서 남부 Florida까지의 지역구분을 DDC에서는 '북동부지역'과 '남동부지역' 두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LCC에서는 '뉴잉글랜드', '중부대서양주', '남동부대서양주'로 좀더 세분하고 있다. 지역의 나열 순서는 DDC와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주(states) 내에서 지역세분은 없고 각 county를 자모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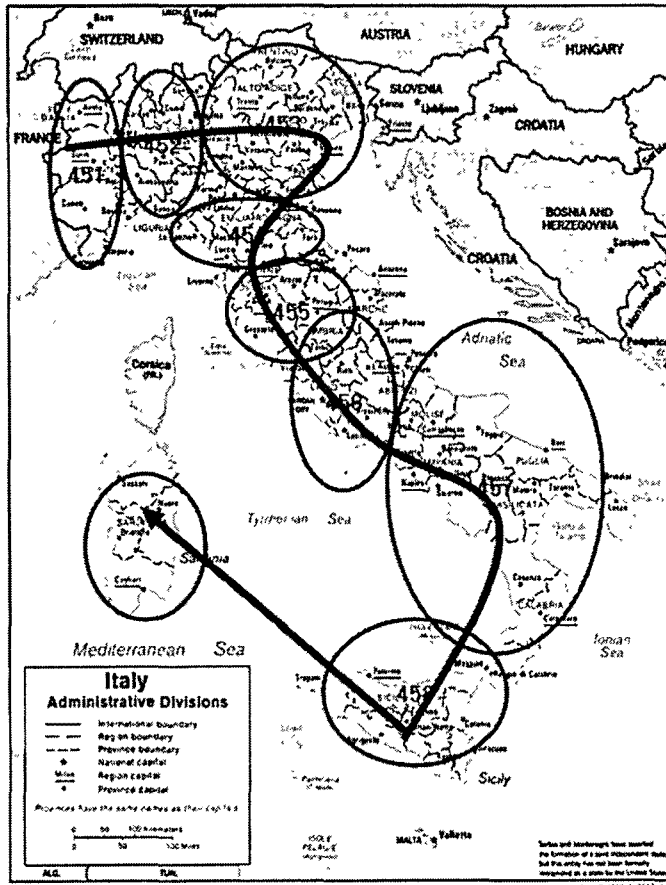
<표 2> DDC와 LCC의 미국 지역구분 비교

DDC		LCC			
미국 -73		미국			
북동부 미국 -74	Maine	북동부 주	북동부 대서양 주	뉴잉글랜드	Maine
	New Hampshire				New Hampshire
	Vermont				Vermont
	Massachusetts				Massachusetts
	Rhode Island				Rhode Island
	Connecticut				Connecticut
	New York			중부	New York
	Pennsylvania			대서양 주	New Jersey

	New Jersey				Pennsylvania		
남동부 미국 -75	Delaware				Delaware		
	Maryland				Maryland		
	Washington DC				Washington DC		
	West Virginia	남부 주	남동부 주	남동부 대서양 주	Virginia		
	Virginia				West Virginia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Georgia		
	Florida				Florida		
Alabama	남부 주				남부 중앙 주	동남 중부 주	Kentucky
Mississippi							Tennessee
Louisiana							Alabama
Texas		Mississippi					
Oklahoma		서남 중부 주	Arkansas				
Arkansas			Louisiana				
Tennessee			Oklahoma				
Kentucky			Texas				
북중부 미국 -76	Ohio	북중부 주	동북부 중부 주		Ohio		
	Indiana				Indiana		
	Illinois				Illinois		
	Michigan				Michigan		
	Wisconsin				Wisconsin		
	Minnesota				Minnesota		
	Iowa				Iowa		
	Missouri				Missouri		
서부 미국 -78	Kansas	북서부 주	서북부 중부 주		North Dakota		
	Nebraska				South Dakota		
	South Dakota				Nebraska		
	North Dakota				Kansas		
	Montana				Montana		
	Wyoming				Wyoming		
	Colorado				Idaho		
	New Mexico				Washington		
태평양 해안 미국 -79	Arizona	남서부 주	신 남서부		Oregon		
	Utah				Colorado		
	Nevada				New Mexico		
	California				Arizona		
	Oregon				Utah		
	Idaho				Nevada		
	Washington				California		
	Alaska				Alaska		
-969	Hawaii				Hawaii		

## 1.2 이탈리아

미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역범주와 나열은 미국지역 구분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DDC에서 이탈리아는 전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그림 1> 참조), 나열 순서는 프랑스와 인접한 북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북동부를 거쳐 남부지역으로 전개된다. 이탈리아는 미국과 달리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로 로마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나열 순서는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상관없이 지리적 위치를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LCC에서는 이탈리아 국가 구분아래 각 지방을 자모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림 1> DDC의 이탈리아 지역구분

### 1.3 일본과 중국

DDC에 의하면, 혼슈(本州), 큐슈(九州), 시코쿠(四國), 홋카이도(北海島)로 크게 구분한 후 세분하고 있어서 일본십진분류표(NDC)와 대분류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십진분류표(NDC)<sup>5)</sup>에 의하면, 북쪽 홋카이도 지방을 시작으로 남쪽 큐슈 지방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DDC에서 혼슈지방을 세분하면 NDC와 동일한 도호쿠(東北)지방, 간토(關東)지방, 호쿠리쿠(北陸)지방, 추부(中部)지방, 긴키(近畿)지방, 추고쿠(中國)지방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DDC에서는 중국을 크게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북경과 상하이로 포함하는 지역을 시작으로 서해 해안선을 따라서 나열되고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만주로 나열하고 있다. DDC에서 일본과 중국을 지역구분과 배열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 몇 개의 지방으로 구분한 후 세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심이 되는 지역을 시작으로 그 국가의 특성에 맞추어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여러 국가의 지역관련 분류체계를 살펴본 결과 DDC의 지역구분과 나열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인구 등의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고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생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는 초기 이민자가 정착한 뉴잉글랜드 지방을 선두로 전개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중심이 되는 지역을 시작으로 차례로 다른 지역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KDC의 한국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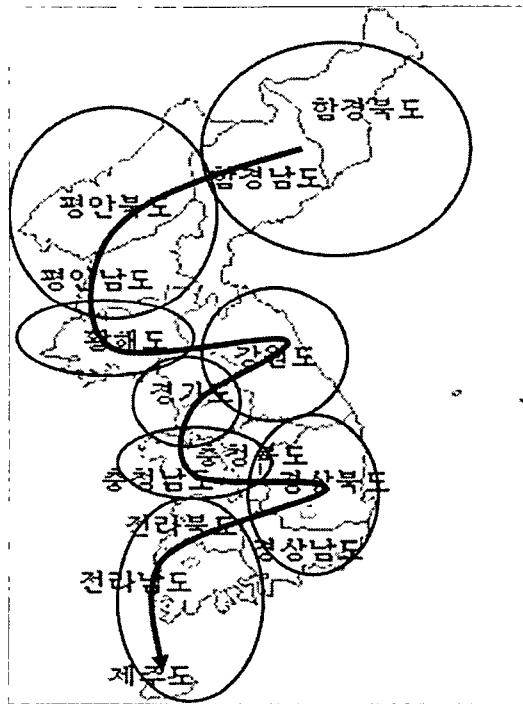
한국십진분류법(KDC)에서 한국의 지역구분은 전국을 9지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지역에 도(道)를 앞세우고 다음에 시·군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2> 참조). 9개 지역은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전개하여 남서쪽인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나열하고 있다. 지역 범주의 최소단위는 여러 개의 시·군이 모인 집단이며,

5) [www.trc.co.jp/trc-japa/search/ndc\\_2.htm](http://www.trc.co.jp/trc-japa/search/ndc_2.htm)

각 지역에서 나열은 9개 지역 나열과 유사한 원칙에 의해서 북동쪽을 시작으로 남서쪽으로 끝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림 >참조).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911.52(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 911.53(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파주군) → 911.54(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군, 양평군) → 911.55(인천광역시, 부천시) → 911.56(김포군) → 911.57(수원시, 오산시, 화성군,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 911.58(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여주군, 이천군) → 511.59(용인군, 안성군, 평택시)으로 되어있어, 경기도 북동쪽에서 시작하여 북서 → 중부 → 남동 → 남서로 나열되어 있다.

KDC의 지역구분은 DDC의 체계와는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역 범주의 계층구조에서 한 지역에 2개 이상의 도(道)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와 시 · 군의 집단 범주와 동일한 계층선상에 나열하였다. 예를 들면, 911.7 충청도의 아래에 911.71 충청북도, 911.72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을 나열하였다. DDC의 체계를 적용한다면, 911.7 충청도, 911.71 충청북도, 911.711 청주시 순의 계층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나열순서가 북동쪽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함경북도가 가장 앞에 나열되고 있다. 함경북도는 우리 나라 관점에서 보면, 가장 변방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미국의 지역 나열순서가 뉴잉글랜드 지방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 방법을 따른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지역구분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우선되어야지 변방이며 문화적 혹은 역사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북동지역을 앞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림 2> KDC의 한국 지역구분

### Ⅲ. 공공기관의 지역구분

다음은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지역 범주를 만들어 사용하는 예이다. 기관에 따라서 지역 범주의 순서를 부여한 것도 있으며, 특별한 순서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범주만을 구성한 것도 있다.

#### 1. 순서를 가진 지역구분

##### 1.1 우편번호

우편번호는 지역범주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를 시점으로 강원도 → 충청남북도(대전광역시 포함) → 경기도(인천광역시 포함) → 전라남북도(광주광역시 포함) → 경상남북도(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제주도 포함) 순으로 전개되고 있어 서쪽 → 동쪽 → 서쪽 → 동쪽으로 전개하는 형상을 보여준다(<표 2> 참조). 하지만, 경기도는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각 도에서는 도청소재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남쪽을 우선(예를 들면, 충청남도가 충청북도에 우선)하고 있다. 도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서쪽 → 동쪽 전개원칙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은 대도시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지방채신청 중심으로 우편번호를 전개한 결과라 여겨진다.

<표 3> 우편번호의 지역구분

지역명		우편번호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10	
	종로구	11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12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도봉구, 동대문구, 노원구	13	
	용산구, 강북구, 광진구	14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15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20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21	
	횡성군, 원주시	22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23	
	동해시, 삼척시	24	
	홍천군, 인제군·양구군	25	
	철원군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30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31	
	논산군, 부여군, 서천군	32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	33	
	당진군, 예산군, 청양군	34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35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	36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37	
	충주시	38	
	제천시, 단양군	39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옹진군, (강화군)	40	강화군은 41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41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42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43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44	
	안성시, 평택시	45	
	광주시, 여주군, 하남시, 이천시, 성남시	46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47	
	동두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군	48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50	
전라남도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화순군	51	
	나주시,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함평군	52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신안군	53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54	
	여수시	55	
전라북도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56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부안군	57	
	정읍시, 고창군	58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59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60	
	강서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61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군	62	
	마산시, 고성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63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	64	
	거제시, 통영시	65	
	사천시, 진주시,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66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67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68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69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70	
경상북도	달성군,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	71	
	구미시	73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74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75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76	
	영천시	77	
	경주시	78	
	포항시, 울릉군	79	

## 1.2 시외전화 지역번호

시외전화 지역번호도 위의 우편번호체계와 유사하게 서울특별시를 시점으로 하여, 경기도 → 인천광역시 → 강원도 → 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제주도 순으로 나열되었다(<표 3> 참조). 부분적으로 도 → 광역시 → 도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남지방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로 남쪽 우선의 원칙이 영남지방에서 역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표 4> 시외전화 지역번호

지역번호	지역	
02	서울특별시	
03	031 경기도	
	032 인천광역시	
	033 강원도	
04	041 충청남도	
	042 대전광역시	
	043 충청북도	
05	051 부산광역시	
	052 울산광역시	
	053 대구광역시	
	054 경상북도	
	055 경상남도	
06	061 전라남도	
	062 광주광역시	
	063 전라북도	
	064 제주도	

## 2. 순서가 없는 지역구분

### 2.1 국세청의 지역구분

국세청의 지방세무서는 경제권역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역구분인데, 전국을 크게 6

개 지방 국세청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세무서를 설치하여 관할구역을 설정하고 있다(<표 4>참조). 지방국세청은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를 포함하며,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 · 북도를 관할한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행정구역에 크게 구속되지 않고 인접한 경제권역별로 구분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영월세무서의 경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일부를 관장하고 있으며, 원주세무서는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일부를 관장하고 있어, 평창군의 경우 두 지역으로 분할되어 영월세무서와 원주세무서 두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5> 국세청의 지역구분

		지역명	비고
서울지방 국세청	강남 외 22개	서울특별시 전역	
중부지방 국세청	인천	동구, 중구, 남구	
	남인천	남동구, 연수구	
	북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인천	서구, 강화군, 김포시(경기도)	
	고양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구리시	
	동수원	수원시 장안구 전역, 용인시	
	수원	권선구 전역	
	부천	부천시, 광명시	
	성남	성남시	
	안산	안산시, 시흥시	
	안양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이천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하남시	
	평택	평택시, 안성시	
	의정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 철원군(강원도)	
	강릉	강릉시, 평창군 일부	
	영월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일부	
	원주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일부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	홍천군, 인제군		
대전지방 국세청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일부, 금산군(충청남도)	
	서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일부	

	공주	공주시, 연기군		
	논산	논산시, 부여군		
	보령	보령시, 서천군		
	서산	서산시, 태안군		
	예산	예산군, 당진군		
	천안	천안시, 아산시		
	홍성	홍성군, 청양군		
	영동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제천	제천시, 단양군		
	청주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일부		
	충주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일부		
	광주지방 국세청	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전라남도), 곡성군(전라남도)	
북광주		북구, 장성군(전라남도), 담양군(전라남도)		
서광주		서구, 광산구, 영광군(전라남도)		
나주		나주시, 영암군 일부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일부		
순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		여수시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군산		군산시		
남원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일부		
전주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일부		
익산		익산시, 김제시		
정읍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방 국세청		남대구	남구, 달서구 일부, 달성군(경상북도)	
	동대구	동구, 수성구		
	북대구	북구, 중구		
	서대구	서구, 달서구 일부		
	경산	경산시, 청도군		
	경주	경주시, 영천시		
	구미	구미시, 칠곡군		
	김천	김천시, 성주군		
	상주	상주시, 문경시		
	안동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	영덕군, 울진군		
	영주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포항	포항시, 울릉군		
	부산지방 국세청	동래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	부산진구, 동구	
북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서부산		서구, 사하구		
수영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중부산	중구, 영도구	
	금정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경상남도)	
	거창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김해	김해시, 밀양시	
	마산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창원	창원시, 진해시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	울산광역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 2.2 검찰청의 지역구분

검찰청의 지역구분은 인구증가와 행정구역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행정구역이 분화되면서 검찰청의 지역구분은 세분화되었다. 검찰청은 시·도를 기준으로 13개의 지방검찰청으로 구분하고, 각 지방검찰청 아래에 몇몇 시·군을 묶어서 하나의 지청이 관할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다(<표 5>참조). 지청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으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검찰청 산하의 고양지청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포함하는데 비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산하의 부산지청은 11개 구(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할구역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교통과 인구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된다. 이와 같은 지역구분은 동일 법률지역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표 6> 검찰청의 지역구분

		지역명	비고
서울	중앙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남부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동부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북부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서부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철원군(강원도)	경기도
	고양	고양시, 파주시	

수원	수원	수원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안산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여주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평택	평택시, 안성시	
인천	인천	인천광역시	
	부천	부천시, 김포시	
춘천	춘천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강릉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원주	원주시, 횡성군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공주	공주시, 청양군	
	논산	논산시, 부여군	
	서산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	천안시, 아산시	
	홍성	홍성군, 보령시, 예산군, 서천군	
청주	청주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영동	영동군, 옥천군	
	제천	제천시, 단양군	
	충주	충주시, 음성군	
전주	전주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	군산시, 익산시	
	남원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정읍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나주시	
	목포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순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구례군	
	장흥	장흥군, 강진군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제주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대구	대구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경주	경주시	
	김천	김천시, 구미시	
	상주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안동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영덕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의성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포항	포항시, 울릉군	
부산	부산	강서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서구, 영도구, 중구	
	동부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울산	울산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	창원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 진해시, 합안군, 의령군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밀양	밀양시, 창녕군	
	진주	진주시, 사천시, 남해시, 하동군, 산청군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2.3 관세청의 지역구분

관세청의 경우는 다른 기관의 지역구분과는 약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상품 수출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루어져 있어서 지역별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크게 서울, 인천공항, 인천, 광주, 대구, 부산본부세관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세관으로 세분되어져 있다(<표 6> 참조). 공항이나 항구가 있는 지역이나 공업단지가 인접한 지역은 세관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러하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세관이 넓은 지역이 관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주본부세관의 광양세관의 경우, 광양시, 구례군, 하동군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나, 서울본부세관의 청주세관은 영동군과 옥천군을 제외한 충청북도 전역을 담당하고 있다.

<표 7> 관세청의 지역구분

		지역명	비고
서울본부 세관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구로세관 관할 제외) 용인시(경기도) 일부, 의정부시(경기도), 동두천시(경기도), 구리시(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고양시(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포천군(경기도), 양주군(경기도), 연천군(경기도), 가평군(경기도), 춘천시(강원도), 홍천군(강원도), 화천군(강원도), 양구군(강원도), 인제군(강원도), 철원군(강원도)	
	구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양천구, 동작구, 강서구	
	성남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안양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동해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강릉시, 태백시,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대전	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연기군, 청양군, 옥천군(충청북도), 영동군(충청북도)	
	청주	충청북도 일원(옥천군, 영동군 제외)	
	천안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태안군	
인천공항 본부세관	인천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본부 세관	인천	인천광역시 일원, 부천시(경기도), 김포시(경기도)	
	수원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일부	
	안산	안산시, 시흥시	
	평택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일부	
광주본부 세관	광주	광주광역시, 나주시(전라남도), 화순군(전라남도), 담양군(전라남도), 곡성군(전라남도), 장성군(전라남도), 영광군(전라남도)	
	여수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목포	목포시,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군산	전라북도 일원, 보령시(충청남도), 서천군(충청남도)	
	광양	광양시, 구례군, 하동군(경상남도) 일부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대구본부 세관	대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부(포항, 구미세관 구역 제외), 합천군(경상남도) 일부	
	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청송군, 영양군, 울진군, 울릉군	
	구미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일부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부	
부산본부 세관	부산	부산광역시 일부, 밀양시(경상남도), 김해시(경상남도)	
	용당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김해	김해국제공항	
	양산	양산시, 울주군 일부	
	마산	마산시, 진해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합천군, 진주시, 사천시 일부,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일부	
	거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일부	
창원	창원시		

## 2.4 KBS TV 방송국의 지역구분

방송국의 시청권역은 문화적인 생활권이라 여길 수 있는 지역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크게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부분적으로 지역 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본사를 비롯하여,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방송총국으로 구분되어져 있다(<표 7>참조). 산악지역이 많은 춘천방송총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강릉, 속초, 원주, 영월, 태백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권역은 부분적으로 중복되지만, 문화 공유 측면에서 동일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표 8> KBS 지방방송국의 방송권

		지역	비고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방송총국		부산광역시	
	울산	울산광역시, (일부: 경주시, 포항시, 양산시)	
창원방송총국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일부: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	진주시, (일부: 거창군, 산청군, 합천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대구방송총국		대구광역시, (일부: 청도군, 경주시, 김천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달성군, 창녕군)	
	안동	안동시, 영주시, (일부: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문경시)	
	포항	포항시, 울진군, 울릉군, (일부: 영덕군, 경주시)	
광주방송총국		광주광역시, (일부: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장성군, 구례군, 곡성군, 장흥군, 보성군, 영광군)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	
	여수	여주시 전역	
	순천	순천시 전역, 완도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전역	
전주방송총국		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구례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장수군	
	군산	군산시 전역, 전북 일원	
	남원	남원시, 전주시 일대, 순천시, 구례군, 고창군, 부안군, 무주군, 임실군	

대전방송 총국		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 부여시, 연기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청원군, 아산시, 천안시, 청원군,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금산군	
	공주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당진군, 청양군	
청주방송 총국		청주시, 진천군, 대전광역시, 충주시, 천안시, 음성군, 괴산군, 청원군, 연기군, 안성시, 보은군, 이천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춘천방송 총국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일부	
	원주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홍천군, 영월군 일부	
	영월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성군, 영월군	
	태백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봉화군	
속초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제주방송 총국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 IV. 한국 지역구분 방향

여러 도서관 분류체계와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구분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리구분 분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최소의 지역범주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둘째, 지역범주의 나열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1. 지역범주

지역범주를 위해서 1차적 지역범주와 계층구조 상 몇 단계로 구분할 것이며, 최소의 지역범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KDC의 1단계 지역범주는 9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단계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소단위의 지역범주는 여러 시·군이 모여져 있는 상태이다. 1차적 지역범주는 우리나라 전역을 구분할 때,

자연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범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구분한 지역 범주는 시외전화 지역번호의 5개 지역구분으로부터 검찰청의 13개 지역구분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위의 지역구분은 한반도 남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최소의 1차 지역구분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동일 권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의 지역범주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최소 지역단위는 소규모의 시·군의 경우는 인근의 2-3개 시·군이 모아진 형태이거나, 대규모 시(광역시 제외) 하나가 적합하다 하겠다. 이러한 최소 지역단위로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가 최소한 3단계 계층구조를 가져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영남지방은 1단계 지역범주이며 2단계 지역범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북부, 경상북도남부, 경상남도북부, 경상남도남부로 구분할 수 있다. 3단계 지역범주는 경상북도북부의 경우 ‘울진군-영덕군-영양군’, ‘영주시-봉화군’, ‘안동시’,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성군-군위군-청송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범주 나열순서

동일단계에서 지역범주의 나열순서는 여러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수직적으로 지리상 북쪽(혹은 남쪽)에서 남쪽(혹은 북쪽)으로 전개, 2) 수평적으로 지리상 서쪽(혹은 동쪽)에서 동쪽(혹은 남쪽)으로 전개, 3) 시계방향 혹은 역시계방향으로 전개, 4) 중심지역에서 주변지역 혹은 역으로 전개<sup>6)</sup>할 수 있다. KDC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열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지역범주의 중심이 강조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지역을 생각할 때 그곳의 대표적인 지역을 우선 떠올리게 되므로 우선 중심지역을 거점으

6) 김태수, 분류의 이해(서울·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p.134

로 하여, 인접지역을 우선적으로 시계방향으로 나열하고, 다음으로 주변지역을 시계방향으로 나열하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본다. 물론, 어떤 나열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장단점은 존재하게 된다. 특히 나열순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범주의 규모라 생각할 때, 적절한 규모는 나열순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지역범주 나열순서를 기준으로 한반도 남쪽의 1단계 지역범주를 나열하면, 서울 → 기호지방(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도 → 호서지방(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 영남지방(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호남지방(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가 된다. 2단계 지역범주는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남부 → 경상남도북부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남부 → 경상북도북부로 나열할 수 있다. 그리고 3단계 지역범주는 안동시 → ‘영주시-봉화군’ → ‘울진군-영덕군-영양군’, ‘영주시-봉화군’ → ‘의성군-군위군-청송군’ → ‘상주시-문경시-예천군’으로 나열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십진분류법의 한국 지역구분이 가지고 있는 지역범주의 포괄성과 지역범주 나열에 있어서 지역범주의 중복성과 변방 우선의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 분류체계 분석과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범주에 대한 분석하여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DDC와 LCC에 의하면, 지역범주 구분 1단계에서 국가별로 나누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행정적 구분에 기반을 두고 세분하였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일정한 나열 순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중심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나열하는 순서를 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범주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소 지역범주에 있어서는 동일 생활권이라 여길 수 있는 지역들을 모아서 제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위에,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은 3단계 계층구조를 가지는 것이 적합하며, 최소 지역범주인 3단계 지역범주는 2-3개 소규모 시·군을 모으거나 혹은 대규모 1개 시를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지역범주의 나열순서는 그 지역범주의 중심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그리고 주변지역은 시계방향으로 나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향은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최소 지역범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동일 생활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동일 지역이란 개념이 역사적, 문화적, 행정적으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지역에 관련된 정보는 그 지역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동일 생활권이란 주민의 인식이 지역 정보 조직과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